

광주의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철거한 후 2만 5000석 규모의 개방형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6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학계·체육계·언론계·시민단체·야구팬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야구장 건립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야구장 건설방식은 개방형으로 하되 규모는 2만5000석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지의 경우 ▲구도심 쇠락 방지 ▲장소성 유지 ▲건축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무등경기장이 최우선 순위로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패널들은 현 무등경기장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미흡, 주차장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인근 단독주택지역 및 보훈회관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애초 광주시가 추진했던 돛구장의 경우 민자투자 기업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문가와 기아타이어즈구단 등이 천연잔디를 선호하면서 논의에서 제외돼 사실상 폐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부지 타당성 용역도 거쳐 단점이 있더라도 무등경기장을 부지로 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며 "무등경기장이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 결정은 올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등경기장의 교통접근성 미흡 등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입지는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는 이달 내 한 차례 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무등경기장과 다른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